



자연이란 이름의 匠人

에르메스가 반한 최고급 캐시미어... '콜롬보 노블 파이브'에 가다

원건 털을 솜처럼 꺼내자 마른 먼지가 보일듯 날았다. "몽골에서 공수해온 캐시미어(cashmere) 털입니다. 염색을 이 털같이 하는 봄에 한지 여성 200명이 땅에 떨어진 털을 일일이 주워 모아 저희에게 보내준 거지요. 밀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동물을 절대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아요. 그 귀한 털로 아무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섬유를 저희가 만들어내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난 '콜롬보 노블 파이브(COLOMBO noble fibres·이하 콜롬보)'의 CEO 로베르토 콜롬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콜롬보는 캐시미어와 비류나, 파나오 등 최상급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캐시미어의 특징은 '가볍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중에서도 콜롬보 캐시미어는 노랑·연두·채리빛 등 색깔이 다양하고 신축성이 좋다. 특히 티베트 염소 털로 만든 금빛의 양지르(Yangir)는 콜롬보에서만 생산되는 고급 섬유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빼고 동물에서 생산된 원단 중 가장 비싸지만 인기가 좋다는 게 콜롬보 특색입니다."

그래서 콜롬보 섬유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디올, 휴고보스 등 명품 브랜드들도 알다시피 구입해 쓰고 있다. 헤마다 매출액 50% 성장을 일궈왔고, 한국에도 진출해 최근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 매장을 냈다.

콜롬보 공정은 밀라노 근교 보르고세 시에 있다. 털 가공에서 엄격하게 모든 공정이 이뤄지지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공기도 쾌적했다. "그런 럭셔리(Green Luxury)를 꿈꿨습니다. 마지막으 로 염색한 봄은 사람이 마셔도 털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해 주기를 보호하지요."

콜롬보가 손잡는 캐시미어 생산지는 몽골 알라산(Alashan)이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 춥고 건조할수록 털이 짧고 촘촘하기 때문에 촉감 좋고 보온성 뛰어난 캐시미어를 만들 수 있다. 머리 카라보다 가는 걸 주워서 사람 손으로 걸 털과 속 털을 나누다 보니 1년에 염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캐시미어는 300g에 지나지 않는다. 비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인 털은 공장에서 총 94단계의 생산공정과 18회의 중간점검을 거쳐 한 쪽의 섬유가 된다. 콜롬보가 루이비통에서 목도리를 만드는 데 쓰일 100% 캐시미어 원단을 보여줬다. 첫 단계를 겨우 거친 캐시미어는 어부의 바다 그물처럼 거칠고 부뭉쳤다. "가로·세로 실을 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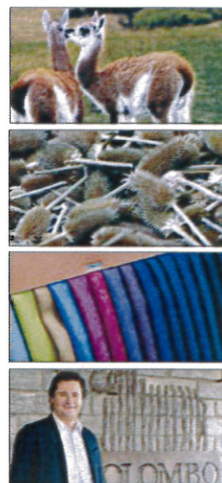
야생 동식물 국제 협약 준수 동물 털 뽑지 않고 따지면 모아 열매 빛질 등 94단계 공정 거쳐 "미래 원단은 방수되는 캐시미어"

레 꼬아서 단단하게 압축해야 고품질 처리를 할 때 원단이 느슨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캐시미어도 과학적 공정을 밟아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거칠었던 원단은 곧 뽀뽀뽀뽀 커튼도 시물의 열매로 빛질해주시 윤기가 흘렀다. 콜롬보는 "3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이리하면 20년을 입어도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고 했다.

완성된 원단은 1m에 40유로를 받는다. "일반 캐시미어 원단(12유로)에 비하면 비싸지만 원단·원사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해서 유자가 많거든요. 그 콜롬보 예가 다. 명품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 요구 사항이 많아 개발은 쉽습니다. 콜롬보는 "30년 전 20곳에 달했던 섬유 업체들이 다 사라지고 전 세계에 겨우 5곳 정도 남아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원단 수준에 올라선"



콜롬보 노블 파이브 CEO 로베르토 콜롬보(위부터) 태안 신의 선물로 여겨질 만큼 사랑받는 비류나 거친 원단을 윤기 나도록 빚질할 때 쓰는 커튼도 시물의 열매. 다양해서 알맞고도 될 수 있는 캐시미어 색상. 콜롬보 노블 파이브의 CEO인 로베르토 콜롬보.

질 좋은 캐시미어 고르는 법
▲ 표면에 광택이 흐르거나 고르지 보드랍다.
▲ 손으로 만졌을 때 구멍이 없다.
▲ 털이 얇아 가벼우면서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캐시미어 세탁하기
미지근한 물에 울 섬유를 넣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수건을 대어서 물기를 뺀 뒤 원래 모양대로 그늘에서 말린다.

콜롬보가 미래에 선보일 첨단 원단은 무엇보다도 가볍다. "하루의 천원대인 캐시미어, 뒤는 나일론으로 서로 다른 것. 게다가 완벽한 방수되는 캐시미어예요. 기대해서 주세요." 밀라노=김정호 기자

오빠의 여자처럼 한 곳 치어 (16) 포켓 스퀘어

그냥 흰 천 아닙니다 신사의 필수품입니다

양복 가슴주머니에 포켓스퀘어(pocket square)를 즐겨 꽂는 필자가 어느 날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창구 직원은 "요즘 유행하는 손수건 꽃으셨네요"라고 인사해왔다. 아깝잖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켓스퀘어가 시류에 영합하는 가벼운 유행으로 치부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이 얼마나 슬프고도 비참한 문화적 참사인가?

양복 주머니에 꽂는 장식용 흰 '포켓스퀘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어느 날 지하를 걸었다. 같은 칸 쪽쪽에 앉은 남자의 하얀색 포켓스퀘어가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 당시엔 포켓스퀘어를 하는 남자가 드물었다. 정장을 갖출 때는 꼭 하나씩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나? 베타가 지 지 풀이었던 상태였지만, 흰색 포켓스퀘어가 회색 정장 차림의 그를 깔끔해 보이게 했다. 멀리서 봐도 다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되고 단정함 모습을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포켓스퀘어가 아니라 차곡차곡 접은 메모지였다. 제대로 된 포켓스퀘어가 아닌데도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첫 포켓스퀘어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양복 소재냐 넥타이, 상하복에도 어울리는 흰색 리넨으로 된 제품을 권한다. 접는 법은 다양하다.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포켓스퀘어는 단정하게 직사각형으로 접어 꽂으면 된다. 가장 적당하고 예의를 차리는 방식이다. 좀 더 육상편단인 스크와 같이 접은 제품을 고른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화려하게 접는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화려한 색상의 제품을 넥타이 등 다른 액세서리의 매칭에 어울리는 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유익한 '오빠' 가 시도해 볼 만한 보람된 작업이다. 작은 천 하나가 당신을 날렵하게, 또 냉정한 분위기를 깨는 아이스브레이커가 될 수 있게 해준다면 왜 시도하지 않았겠는가?

이현 패션플래너·'신사용품' 저자

탄생 14년에 불과한 白酒, 중국 名酒 된 비결은?

중국 고급술 '수정방'

수이정방(水井坊·수정방)은 요즘 한국 애주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중국술이다. 흔히 '양주'로 통하는 위스키 뺀뒤에 비싸고, 위스키만큼이나 가볍고 많다. 수이정방은 중국집에서 싸게 마시는 '해간(중국어로 고통받듯 뜻하는 바이건엔(白干兒)의 변형)'처럼 백주(白酒·증류주)로 분류된다. 똑같은 백주인데 수심 배 더 비싼 이유는 뭘까. 지난 19일 중국 소산성 청두에 있는 수이정방 본사 견학실에서 백

주 수희회가 열렸다. 양조전문가 가오페이(高飛·44)씨는 수이정방을 포함한 백주 8가지를 시음용으로 가지고 나왔다. "좋은 백주는 맑고 깨끗하지만 동시에 달고 두텁고 부드럽고 매끄럽죠. 영어로 하면 크리미(creamy)하달까요. 삼킨 다음에도 풍미가 오랫동안 입안에 여운으로 남습니다."

수이정방이 마오터이(茅台·우량에(五糧液) 등 유명 백주는 가짜가 많다. 가오씨는 "짜귀라 백주나 위조품은 예뻐(회화적으로만 알고)에 인공 첨가물을 섞거

나 백주 원액에 에탄올을 더해 알콜 농도를 높이는 불·판법을 쓴다"면서 "향이 없고 향기를 맛만 낸다면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이정방 만드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양조장에서는 인부 셋이 북쪽 탁만 한 구덩이에서 걸쭉해 보이는 혼합물을 퍼내고 있었다. 가오페이는 "발효가 끝난 곡물을 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백주는 곡물을 발효해 만든 밀술을 증류해 만든다. 우리 소주와 같다. 수수·쌀·보리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곡물을 사용한다. 수이정방은 수수를 주재



수이정방 본사 견학실에서 가오페이(高飛) 씨가 수이정방의 발효가 끝난 곡물을 퍼내고 있다. 이걸 밀술로 만들고 증류해 숙성시킨다. '우물에 맑은 길'이라는 뜻의 수이정방은 조니워커 위스키를 생산하는 다국적 주류 기업 디아지오(Diageo)에 2013년 인수됐다.

료로 하되 쌀·참쌀·옥수수·보리를 더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한다. 여기에 불거를 섞은 뒤 진흙으로 덮어 만든 술독에 담아 숙성시켜야 한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백주는 맛과 향이 부드럽고 깊어진다. 술독은 오래된 것일수록, 연속적으로 사용된

것일수록 좋다고 알려졌다. 수이정방은 중국 술 중에서 역사 가 매우 짧다. 지난 2000년 처음 출시됐으나 14년에 불과하다. 1998년 당시 수이정방의 모기업이던 취안신(全興)은 양조장 보수를 위해 땅을 팔다가 800년 전인 원대(元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양조장 유적을 찾아냈다. 청나라 때까지 술을 생산하던 이 양조장 곡물 발효 구덩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효모균이 살아 있었다. 이 효모균을 연구실로 가져다가 배양해 만든 술이 수이정방이다. 그때까지 유명 백주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위안성이 역사와 스토리를 덧입어 새로운 명주로 만들어 낸 '마케팅의 승리'였다. 청두(중국)=김정호 기자

정민 교수가 선사하는 깨끗한 정화의 울림!

말들로 어지러운 세상에 던지는 단장(短章)의 미학. 단 다섯 자에 마음밭 울리기 터진다!

우리 한시: 삼백수

공자는 《시경》을 유오면서 《시경》의 실제 권을 현악이라고 말하며 사부사(四部書)라고 했다. 사부사는 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를 쓴 사람의 성격에 차이가 없었어 시의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된다. 이것이 3백수의 상징성이 굳어지게 되었다. 사심백은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연속력이다 뜻과 같다. 남다른 신수(新書)가 되고 주의를 끌고 나쁜 근 해 살림에 가깝다. 1,000페이지

5언절구 편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7언절구 편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오직 독서문

"당시서 공부, 양이 독자의 열정이다"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일침

한시 시인을 소개하는 고전적 비문

2012년 10월 10일 출간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조심

"다들 내 마음을 몰라요"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할매 | 100쪽 | 13,000원

김영사 | 11-9701-949-949 | www.kyungsa.com | 002-4161-1411

CHOSUN



Master craftsman named after Nature

A designer is revising the waist line of a red cashmere jacket with a pin in the factory of COLOMBO Noble Fibers which has produced high-end fabrics. COLOMBO Noble Fibers is the first company that developed washing and dyeing process for cashmere end product. It made people surprised with their elastic cashmere synthesized with span 25 years ago.

The highest-quality cashmere which Hermes falls in love with....visited COLOMBO Noble Fibres

Dry dust flew as soon as a bundle of tangled goat's hair was put out of. "It is cashmere from Mongolia. In spring when goats were molting, 200 women here gathered and sent it to us. We never kill and mistreat living animals because we observe CITES,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endangered animals. We are so proud of our fibers made of noble hair, which nobody can produce.", proudly said Roberto Colombo, the CEO of COLOMBO (short for COLOMBO Noble Fibres). We met him in Milano, Italy.

COLOMBO is one of global fashion brands, which has produced premium fabrics such as cashmere, vicuna, guanaco, and so on. The feature of cashmere is 'light, soft, and warm'. Especially, the cashmere of COLOMBO has elasticity and a plenty of colors such as yellow, green, cherry, etc. Golden yangir made of Tibetan goats' hair is a prestige fiber produced only by COLOMBO. COLOMBO explained, "It is the most expensive among furs except gold and diamond, but it is very popular."

Therefore, Hermes, Louis Vitton, Prada, Gucci, Dior, Hugo Boss, such luxury brands have purchased the fabrics of COLOMBO. It has reported 50% of progress on sales every year, and opened a shop in Lotte department store Avenuel Worldtower branch.

Its factory is in Borgosesia near Milano. It hasn't any smell even though all the steps of producing have been running. The air is also very fresh. "We dream on Green Luxury. We have tried to prevent water from pollution by perfectly purifying the last water of dyeing. The purified water is good to drink."

The best region of cashmere is Alashan in Mongolia. The temperature there falls to 40 degrees below zero. Since the colder and drier the weather is, the shorter and more tufted the hair is, warmer, softer, and better cashmere can be produced. The hair which is thinner than human's hair has been gathered by handwork, so the amount of cashmere in one year is just 300g. Therefore, it cannot but be expensive.

Then, the hair has been used to be fabrics through total 94 steps of producing process and 18 inspections. COLOMBO showed us cashmere to be used for making mufflers of Louis Vitton. The

cashmere which passed only the first step of producing was very rough like fishing net. 'Warp thread and weft thread should be woven each other many times, and then should be pressed to prevent fabrics from loosening. Cashmere results from scientific producing process.'

Observing CITES

Gathering hair, not plucking out

Throughout 94 steps of producing such as fruit combing

"The next textile is waterproof cashmere"

The rough fabric has got luster after combing with Cardo fruit whose shape is sharp. "It is the method succeeded since 300 years ago. Fabrics on this method never unhair even though being worn for 20 years.", COLOMBO said.

End item costs 40 Euro one meter. "It is a little more expensive than a regular fabric which costs 12 Euro, but it is hard to keep fibers and fabrics with a lot of investment.", COLOMBO said. In addition, they explained that they have relationship with luxury brands, so they have been given many demands from the brands. It is the reason why there were over 20 textile companies 30 years ago, but now there remain only 5."

We asked COLOMBO what fabric in cutting edge they will introduce in the future. "It will be waterproof cashmere whose front is cashmere and whose back is nylon. You can look forward to it."

How to pick up good-quality cashmere

- * With elegant luster and soft texture
- * Not easy to wrinkle
- * Lint-free and not deformable after washing

Washing cashmere

Softly press it with hands in warm water with wool shampoo. Drain with a towel and then dry in the shade.

(from the top) Beloved vicunas which is considered the gift of the god of the Sun. Cardo fruit which is used to comb rough cashmere to give it luster. A variety of colors which can be chosen as taste. Roberto Colombo who is the CEO of COLOMBO Noble Fibres.